

# 韓國人의 政治成熟度

申 道 澈\* · 閔 元\*\*

<目 次>	
I. 序 論	5. 資料蒐集
1. 問題의 提起	II. 本論
2. 政治的 成熟度 研究의 必 要性	1. 韓國人의 政治的 成熟度
3. 政治的 成熟度의 定義	2. 理論的 含蓄
4. 政治的 成熟度의 測定	III. 結論

## I. 序 論

### 1. 問題의 提起

오늘날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民主政治의 열기에 가득차 있다. 이는 현정 40여년 사상 유례없는 일로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렬하게 지지, 추진해온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민들은 이제 안정적이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기대감에 가득차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만 가지고는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이상인 안정적이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난번의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보았듯이 비록 한국국민들이 자신의 민주적인 염원을 강력하게 표현하기는 하였어도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후보자나 그 지지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관용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5공화국 핵심인물들에 대한 비리조사와 처벌에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정치적 선호 및 행위에 대해서는 비민주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순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 미국 Sangamon 大學校, 政治學

\*\* 세종연구소, 國제政治학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과연 한국인들이 안정되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데 주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본고는 우선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준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政治的 成熟(political sophistic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성숙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측정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성숙도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 본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한국인의 준비자세를 검토하는 데 있어 왜 “정치적 성숙”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가? 정치적 성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한국인의 정치적 성숙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느 부류가 가장 성숙한 면모를 보이고 어느 부류가 가장 덜 성숙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가? 정치적 성숙도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정치적 성숙도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해답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완전하고도 만족할만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본 연구가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탐색적인 연구라는 입장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최대한 해답을 찾도록 할 것이다.

## 2. 政治的 成熟度 研究의 必要性

민주주의 발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이론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치제도적, 문화적, 심리적 및 사회경제적 요소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政治文化(potitical culture)적 차원에서는 주로 參與的 定向을 강조하고 있으며, 政治心理學의 차원에서는 성격(personality), 신뢰(trust), 또는 정치적 관용(potitical tolerance)이라는 개념으로써, 政治經濟學의 차원에서는 부르조아 계급의 등장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설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로써 오늘날 한국에서 급격히 전개되고 있는 민주화의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다소의 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Ronald Inglehart 교수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정치문화의 모델은 대체로 靜態的인 개념에

의존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정치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신뢰”나 “정치적 관용”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심리적인 상태만을 취급할 뿐 그들의 행위 자체를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오늘날의 한국사회와 같이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행태에 대해서 부분적, 정적, 불균형적인 설명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동적이며 균형잡힌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정치적 성숙”이라는 개념의 도입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정치문화나 성격이 장기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정태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정치적 성숙”은 단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의식 및 행태의 변화를 취급할 수 있는 동적인 개념이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성숙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단지 성숙도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정치적 지식, 이해, 교양도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따름이며, 직접적으로 정치적 성숙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매스미디어나 교육수준 등과 연관된 측정만을 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치적 성숙”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W. Russell Neuman의 *The Paradox of Mass Politics: Knowledge and Opinion in the American Elector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와 Robert Luskin의 *The Roots of Political Sophistic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83)을 들 수 있다. 특히 Neuman의 연구는 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꼽히고 있는 바, 본 연구는 그의 개념과 이론을 충분히 검토하고자 한다.

Neuman은 “정치적 성숙”이라는 개념이 “정치적 현시성 (political salience),” “정치지식 (political knowledge),” “정치적 개념화 (political conceptualization)”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현시성”은 정치에 대한 관심 (interest), 주의 (attentiveness), 개입 (involvement)의 정도를 나타내며, “정치지식”은 정치적 인물, 정치현안, 정부구조 및 정치집단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표시하고, “정치적 개념화”는 정치행위에 대한 “개념적 분별력 (conceptual differentiation)”과 “개념적 통합력 (conceptual integration)”

의 수준을 측정한다고 하여 정교한 개념규정을 시도하고 있다.

Neuman의 개념과 모델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다. 첫째로 그는 “정치적 성숙(polynomial sophistication)”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그 구성요소만을 나열하고 있다. 그가 제안한 3개의 구성요소를 검토해 볼 때 그의 개념은 주로 정치적 지식 및 인지적 기술의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Neuman의 개념은 정치생활이 시민들 개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 좌우된다는 가정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서 시민 개개인의 개체적인 측면만 다룰 뿐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인간관계라는 측면은 다루지 못하고 있다. 정치란 시민과 시민, 시민과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와 지도자간의 상호관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집단생활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개념은 국민들이 원하는 통치체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치체제 사이에는 정치적 성숙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體制比較의 차원에서 부적절한 개념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체제에서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과 정치생활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양 체제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성숙의 내용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Neuman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좀더 넓은 차원에서 개인보다는 공동생활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정치적 성숙”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지식 및 인지도 외에도 개인의 행동,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사회적인 상호관계도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한걸음 더 나아간 접근법을 통하여 民主政治體制의 發展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인의 정치적 성숙도를 측정하게 될 것이다.

### 3. 政治的 成熟度의 定義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정치적 성숙”이란 개념은 “국민들이 추구하는 政治的 理想이나 政治體制의 달성을 위한 요구조건을 성취하는것”이라고 규정짓기로 한다. 이러한 개념은 특히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체제가 다를수록 정치적 성숙의 요소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성숙도의 요소는 특정정치체제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도 강조한다.

위에서 제시한 개념적 정의를 구체화(operationalize)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체제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민주체제를 원하므로 민주주의 개념에서 정치적 성숙도의 구성 요소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Robert Dahl이나 Arend Lijphart 교수들이 지적하듯이 국민에 의한 정부만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정부(responsive government)이다. 달리 말하면 국민의 선호에 일치하는 정부(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eople's preference)가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Dahl 교수는 *Polyarchy*라는 저서에서 정부가 국민들이 표시하는 선호에 계속 호응하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첫째로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선호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들의 선호를 개인 및 집단활동을 통해서 정부와 다른 동료시민들에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세째로 그들이 표시한 선호는 그 내용이나 원천에 관계없이 정책형성 과정에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인들이 올바른 사실과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들의 정치적 선호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형성된 선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치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집단들이 표현하는 정치적 선호에도 관용을 베풀어야 한국 정치가 보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성숙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① 정치적 인식 ② 정치적 선호 형성 ③ 정치적 참여 ④ 정치적 관용. 이 4가지 요소는 Neuman이 제시한 것과는 달리 시민 개개인의 정치의식 및 행태 뿐만 아니라 급속히 변화할 수 있는 그들 간의 인적 관계도 포함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정치성숙 수준을 좀더 포괄적이고 동적인 면에서 묘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 4. 政治的 成熟度의 測定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폭넓게 규정된 “정치성숙”의 개념을 좀더 의미있게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다차원적이며 계속적인 변수(multidimensional and continuous variable)로 취급했다. 각 차원마다 우선 3개 이상의 지수(indicator)를 선정했고, 이 지수를 종합하여 각 차원에 해당하는 복합지표(composite index)를 만들었다. 다음에는 각 차원의 복합지표를 다시 종합하여 총

체적인 정치성숙도의 지표(overall index of political sophistication)를 만들었다.

4개의 차원에 해당하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차원에 해당하는 지수의 값을 “1”이나 “0”으로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이 지수들의 변경된 값을 더해서 각 차원의 복합지수를 계산했다. 각 차원의 복합지수의 값을 다시 상·중·하의 3단계로 분류해서 “1”점에서 “9”점까지를 택하는 척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3점수를 갖는 4개의 차원별 지표를 더해서 “1”점에서 “3”점까지 택하는 정치성숙도의 총체적 지표를 만들었다. 정치성숙도의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기 위하여 총점이 1점에서 3점까지는 “하”的 수준, 4점에서 6점까지는 “중”的 수준, 7점에서 9점까지는 “상”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본 연구는 전반적인 정치적 성숙도가 4가지의 요소별로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는가, 그리고 성숙도의 총체적 지표의 9가지 단계별 응답자의 비율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응답자들의 몇 가지 특성에 따라 정치적 성숙도가 어떠한 분포의 변화를 보이는가도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체제, 현 정부, 그리고 정당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가 정치성숙도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 5. 資料蒐集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론조사 자료는 1988년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2,007명의 한국인 성인을 표본으로 개별면담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표본은 다단계적 충화 표본추출(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방법에 의해서 추출되었다. 서울 및 4개 대도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 거주하는 성인의 비율에 의해서 이 지역에 표본의 비율을 설정했다. 표본에 추출된 사람은 남자가 전체의 58.1%로 경제기획원의 1985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에 나타난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I. 本論

### 1. 韓國人の政治的成熟度

#### (1) 정치적 성숙도의 수준

우선 정치적 성숙도의 첫번째 요소인 정치적 인식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현 정치체제 및 민주정부의 사회문제 해결성에 대해서 각각 67.4%, 66.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민주화의 열기로 인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도는 77.8%에 달하고 있다. 응답자 중 38.2%가 3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

〈표 1〉 정치적 성숙도의 측정 : 지수별 응답자 분포

	긍정적 응답자 비율(%)
가. 정치적 인식	
1) 현 정부형태에 대한 인식	67.4
2) 민주정부의 사회문제 해결성 인식	66.1
3) 민주화를 위한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여부	77.8
나. 정치적 선호	
1) 특정한 정부형태 선호	89.4
2) 특정한 정치체제 선호	79.6
3) 특정한 정당 선호	75.6
다. 정치적 관용	
1) 시위	47.3
2) 파업	33.8
3) 북한과 협상 운동	88.6
4) 남녀 동등권 주장	86.4
5) 부자나 대기업체 재산몰수 주장	39.9
6) 미군철수 운동	31.6
7) 노동조합 운동	85.3
8) 공산주의 운동	7.8
라. 정치적 참여	
1) 정치에 관해서 토론	71.4
2) 특정후보에 대한 투표권유	38.6
3)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	41.9
4) 정치 집회나 모임에 참여	32.3
5)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봉사	20.2

적인 응답을 해서 정치적 인식도의 상층부에, 39.5%가 2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해서 중층부에, 그리고 22.3%가 전혀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거나 한가지 질문에만 긍정적인 대답을 해서 하층부에 속하고 있다. 상층부에 속하는 응답자의 수가 하층부의 응답자의 수보다 1.5배에 달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정치적 인식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두번째의 요소인 정치적 선호도에 있어서도 한국인들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정치체제의 선호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혼합체제 기타 정치체제 중에 특정 체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89.4%로 매우 높은 편이며, 79.6%가 독재주의와 민주주의체제 중 한가지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75.6%가 4대 및 여타 정당중에 특정 정당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응답자의 분포로 볼 때 응답자의 57.9%가 상층부에, 30.7%가 중층부에, 11.3%가 하층부에 속하고 있다. 응답자 중 반 이상이 상층부에 속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정치적 선호도에서 성숙한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성숙도의 세번째 요인인 정치적 관용도에 있어서는 22%가 정치활동에 관한 8개의 설문항목 중에서 2/3 이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해서 상층부에, 35.9%가 1/3 이하만을 허락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하층부에 속하고 있다. 관용도의 하층부에 속하는 응답자가 상층부에 속하는 응답자보다도 훨씬 많다는 사실과 응답자 5명 중에 1명이 상층부에 속한다는 사실은 한국인의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개개 항목에 대한 허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들은 여전히 공산주의 운동(7.8%)을 금기시하고 있으며, 미군철수 운동(31.6%), 과업(33.8%), 부자나 대기업체 재산몰수 주장(39.9%), 시위(47.3%) 등에 대해서는 낮은 관용도를 보임으로써 급진적이고 과격한 성향에 대해 여전히 동조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상황 및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의 성장으로 인하여 북한파의 협상운동(88.6%), 남녀 동등권 주장(86.4%), 노동조합운동(85.3%)의 허용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네번째 요소인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 한국인들의 성숙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71.4%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타인에게 특정후보에 대한 투표를 권유(38.

〈표 2〉 정치적 성숙도의 차원별 수준

성숙도 차원	응답자의 분포 (%)							
	0	10	20	30	40	50	60	70
정치적 인식								
상					38.2 %			
중						39.5 %		
하				22.3 %				
정치적 신호								
상						57.9 %		
중					30.7 %			
하			11.3 %					
정치적 관용								
상		22.0 %						
중				41.3 %				
하					35.9 %			
정치적 참여								
상		21.1 %						
중			13.9 %					
하						64.7 %		
정치적 성숙								
상		22.4 %						
중					57.5 %			
하				19.3 %				

6%),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41.9%), 정치 집회나 모임에 참석(32.3%),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봉사(20.2%)의 항목에 있어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응답자의 분포는 상층부가 21.2%, 중층부가 13.9%, 하층부가 64.7%에 이르러 매우 낮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10명 중에 1명(11.8%)꼴로 5가지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적극적 참여자인 반면에 5명 중에 1명(18.2%) 정도는 어느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는 적극적 비참여자인 것을 주목해야 하겠다.

이러한 4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정치적 성숙도를 “1”에서 “9”까지 9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크게 3으로 나누어 볼 경우, 7-9의 상층부에 22.4%, 4-6의 중층부에 57.5%, 1-3의 하층부에 19.3%가 해당함으로써 한국인들의 대다수가

〈표 3〉 정치적 성숙도의 수준별 응답자 분포

수준	종합 시수 점수	응답자 비율 (%)			
		0	10	20	30
상	9	2.5%			
상	8		7.1%		
상	7			12.8%	
중	6				17.6%
중	5				21.5%
중	4				18.3%
하	3			10.2%	
하	2		6.6%		
하	1				2.4%

증층부에 속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3〉은 또한 40명 중 1명 (2.5%) 만이 종합지수의 최고 점수인 “9”점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인들의 정치적 성숙도가 앞으로 많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 4〉 정치적 성숙도와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	성 별					
	1	2	3	4	5	6
가. 교육수준						
무학, 국민학교				3.9		
중학교					4.7	
고등학교						5.2
전문대학						5.5
4년제대학						6.0
나. 가족수입						
20만원미만				4.6		
20~39만원					4.9	
40~59만원					5.0	
60~89만원					5.2	
90만원이상					5.5	
다. 객관적 계급						
중상계급					5.6	
신중간계급					5.6	
구중간계급					5.3	
근로계급					5.2	
하류계급					4.9	
농·촌					5.2	
비경제활동인구					4.5	

지적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인 중에서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제일 성숙한가를 그들의 교육수준 및 기타 특성을 고려해서 알아보자. <표 4>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수준이 정치적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無學 및 국민학교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평균 성숙도가 3.9로서 4년제 대학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평균 성숙도 6.0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성숙도의 점수가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인들의 교육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그들이 정치적으로 점차 성숙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도록 해주고 있다.

가족의 수입과 정치적 성숙도와의 관계는 “나”항에 나타나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입이 높아질수록 성숙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항의 客觀的인

응답자의 특성	성      숙      도					
	1	2	3	4	5	6
라. 주관적 계급						
상류층				5.3		
중류층				5.2		
중하층				4.9		
하류층				4.6		
마. 연령						
30세 미만				5.3		
30 ~ 39				5.2		
40 ~ 49				4.8		
50 ~ 59				4.7		
60세 이상				4.6		
바. 거주지 유형						
서울				5.1		
기타 대도시				5.0		
중소도시				5.3		
읍				5.0		
면				4.9		
사. 성별						
남자				5.5		
여자				4.4		

계급의 수준도 정치적 성숙도에 대체로 정비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상계급 및 신중간계급의 평균 성숙도가 5.6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하류계급이 4.9, 비경제활동인구가 4.5로서 낮은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主觀的인 계급인식의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라”항을 보면 자신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평균 5.3의 성숙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하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평균 4.6의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인들은 대체로 수입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객관적 주관적 계급이 높을수록 높은 정치적 성숙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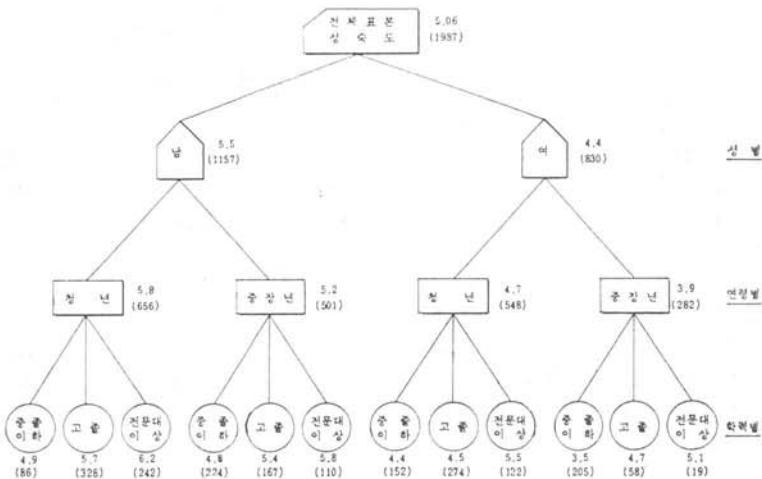
연령과 정치적 성숙도와의 관계는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성숙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30세 미만의 응답자가 평균 5.3, 30~39세가 5.2로서 높은 성숙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40~49세가 4.8, 50~59세가 4.7, 그리고 60세 이상이 4.6의 낮은 성숙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지 유형이 정치적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면” 지역의 응답자들이 평균 4.9의 성숙도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여타 도시지역 응답자의 성숙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서울 (5.1)이나 기타 대도시 (5.0) 보다 중소도시 (5.3)의 응답자들이 더 높은 정치적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특이 할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성별에 따르는 정치적 성숙도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의 평균 성숙도가 5.5인 반면에 여자는 4.4에 머물고 있어서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남녀간의 정치적 의식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에서 고려한 개인의 특성 중 성숙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응답자의 학력, 연령, 그리고 성별 지위는 〈그림 1〉에서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남자／청년층／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평균 6.2, 남자／중장년층／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평균 5.8, 남자／청년층／고졸의 응답자가 평균 5.7의 높은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여자／중장년층／중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평균 4.4, 여자／청년층／고졸의 응답자가 평균 4.5의 성숙도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그림 1〉은 또한 같은 연령층에서, 그리고 같은 교육수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언제나 정치적으로 더 성숙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에 의한 성숙도의 차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대학졸업자 중에서 제일 적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또한 〈그림 1〉에서 연령이나 성별의 차위에 관계없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에 의한 차이는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정치적 성숙도와 민주화에 대한 태도

우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8개월 동안의 민주화조치에 대한 만족 여부 및 앞으로의 추가적인 민주화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표 5〉에서 설명한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민주화조치에 의해 혜택을 입은 사람이 “많다”가 11.0%, “약간 있다”가 45.0%로서 전체응답자의 56.0%가 대체로 만족함을 보이고 있으며, “별로없다”가 33.8%, “전혀 없다”로 완전히 만족치 못하는 반응도 3.8%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앞으로 더 많은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8.7%, 현재의 민주화 수준에 만족하는 응답자가 17.3%, 현재의 수준보다 더 자제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3.9%를 차지함으로써 대다수의 한국국민들이 지속적인 민주화 발전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치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좀 더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표 5〉 민주화에 대한 태도의 측정

태도의 유형	응답자의 분포	
	비율(%)	빈도 수
가. 만족감 : 민주화로 혜택을 본 사람		
1) 많다	11.0	(221)
2) 약간 있다	45.0	(907)
3) 별로 없다	33.8	(781)
4) 전혀 없다	3.8	(76)
9) 잘 모르겠다	1.4	(30)
나. 지지감 : 더 많은 민주화의 필요성		
1) 민주화가 더 많이 되어야 한다	78.7	(1,586)
2)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	17.3	(348)
3) 지금 보다 자제되어야 한다	3.9	(79)
9) 잘 모르겠다	0.1	(2)

서 〈표 6〉에서는 위에서 검토한 2가지의 태도를 동시에 고려해 보고있다. 지난 8개월 동안의 민주화조치에 불만을 표시하며 동시에 더 많은 민주화를 원하지 않는 적극적 反民主主義者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가 7.3%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43.3%가 지금까지 시행된 민주화조치에 만족하며 또한 보다 큰 민주발전을 열망하고 지지하는 적극적 민주주의자로 판명되었다. 이 두 수치를 비교하면 현재 민주화를 적극 찬성하는 세력이 적극 반대하는 세력 보다 6배나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시행된 민주화조치의 결과에는 만족치 못하지만 앞으로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계속 지지하는 응답자도 1/3 정도나 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다음은 정치적 성숙도의 차이가 민주정치체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에

〈표 6〉 정치적 성숙도와 민주화에 대한 태도

태 도 유 형		정치적 성숙도의 수준 <sup>1</sup>		전 체 표 본 <sup>2</sup>
만족여부	지지여부	비성숙자	성숙자	
불만족	반대	15.4%	2.5%	7.3% (144)
불만족	지지	30.8	40.0	35.9 (713)
만족	반대	18.9	8.3	13.6 (269)
만족	지지	34.9	49.3	43.3 (857)

주 : 1. 비성숙자는 성숙도의 “하” 수준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성숙자는 성숙도의 “상”수준에 해당하는 자를 일컬음.

2. 표본중 49명은 무응답자로서 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음.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민주화를 적극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정치적 성숙자의 경우에는 약 1/2 정도(49.3%), 비성숙자의 경우에는 약 1/3 정도(34.9%)로 나타나 민주화에 대한 성숙자들의 지지율이 비성숙자의 지지율 보다 2/5 정도 높다. 반면에 민주화를 적극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성숙자가 2.5%, 비성숙자가 15.4%로 후자가 전자보다 6배나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처럼 정치적 성숙도의 수준 간에 민주화에 대한 적극 지지 및 반대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본 논문에서 우리가 시도한 정치성숙도의 측정이 대체로 타당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3) 정치적 성숙도와 현 정부에 대한 태도

현재의 6공화국 탄생으로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지난 6개월 동안의 현 정부의 업적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한다”가 4.5%, “만족하는 편이다”가 39.5%로서 전체 응답자의 45.0%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에, “그저 그렇다”가 43.9%, “불만인 편이다”가 10.0%, “아주 불만이다”가 1.9%로서 전체 55.8%가 중립적 혹은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그러나 6공화국 정부의 출범 자체를 지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은데, “적극 지지해야 한다”가 37.0%, “어느정도 지지해야 한다”가 56.6%로서 전체의

<표 7> 현 정부에 대한 태도의 측정

태 도 의 유 형	응답자의 분포	
	비율(%)	빈도수
<b>가. 만족감</b>		
1) 아주 만족하다	4.5	(91)
2) 만족하는 편이다	39.5	(796)
3) 그저 그렇다	43.9	(885)
4) 불만인 편이다	10.0	(202)
5) 아주 불만이다	1.9	(38)
9) 잘 모르겠다	0.1	(3)
<b>나. 지지감</b>		
1) 적극 지지해야 한다	37.0	(745)
2) 어느 정도 지지해야 한다	56.6	(1,141)
3) 전혀 지지할 필요가 없다	6.1	(123)
9) 잘 모르겠다	0.3	(6)

93.6%가 6공화국 정부의 출범에 긍정적인 반면, “전혀 지지할 필요가 없다”의 부정적인 견해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6공화국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6개월 간의 현 정부의 업적에 대해서는 45.0%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함으로써 현 정부가 출범 당시의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2가지 태도를 동시에 고려해서 응답자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6공화국의 출범을 지지하고 현 정부의 업적에도 만족하는 응답자가 43.7%, 6공화국의 출범을 지지하나 현 정부의 업적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가 50.3%, 6공화국의 출범과 현 정부의 업적 모두에 부정적 응답을 한 응답자가 5.3%, 6공화국의 출범은 지지하지 않으나 현 정부의 업적에 만족함을 표시한 응답자는 0.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4가지 유형 중 2개의 극단적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현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표시하는 응답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표시하는 응답자보다 8배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은 또한 현 정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와 정치적 성숙도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6공화국 정부의 출현에 대해 정치적 성숙자 및 비성숙자가 공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자가 87.5%, 후자가 96.1%로서 정치적 비성숙자의 지지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개월간의 현 정부의 업적에 대해서도 정치적 성숙자의 36.7%가 만족감을 표시한 만큼 정치적 비성숙자의 46.9%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치적

〈표 8〉 정치적 성숙도와 현정부에 대한 태도

태 도	유 형	성숙도의 수준 <sup>1</sup>		전 체 표 본 <sup>2</sup>	
		비 성숙자	성 숙 자		
만 족 여 부	지 지 여 부				
불 만 족	반 대	3.9%	11.4%	5.3%	(109)
불 만 족	지 치	49.2	51.9	50.3	(1,010)
만 족	반 대	—	1.1	0.7	(13)
만 족	지 치	46.9	35.6	43.7	(874)

주 : 1. 비성숙자는 성숙도의 “하” 수준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성숙자는 성숙도의 “상” 수준에 해당하는 자를 일컬음.

2. 표본 중 27명은 무응답자로서 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음.

성숙자가 비성숙자에 비해 현 정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정치적 성숙도와 정치적 변화에 대한 태도

한국인의 정치적 성숙도와 정치적 변화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는 〈표 9〉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 표는 〈표 5〉와 〈표 7〉의 “나”항을 합한 것으로서 이를 다시 설명하면, 민주정치체제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78.8%, 이에 부정적인 응답자가 21.2%, 현 정권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94.0%, 이에 부정적인 응답자가 6.0%로서 〈표 9〉에서 무응답자 26명을 제외하였으므로 전체 비율이 〈표 5〉 및 〈표 7〉의 비율과 근소한 차이가 있음),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 정부를 지지함과 동시에 더 많은 민주정치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한국인들은 현 정권의 변화보다는 민주정치체제로서의 體制的變化를 더 갈구하고 있다 하겠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 정권과 체제 모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견해가 5.5%, 현 정권과 체제 모두를 지지한다는 견해가 20.7%, 현 정권에는 반대하면서 현 체제에 만족하는 견해가 0.5%, 현 정권을 지지하면서 좀 더 민주적인 체제로의 발전을 요구하는 견해가 73.3%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적인 것은 현 정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응답자가 정치적 비성숙자층에서는 96.1%로, 정치적 성숙자층의 87.1% 보다 훨씬 높은 반면, 좀 더 발전적인 민주정치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응답자는 정치적 성숙자층이 89.3%로서 정치적 비성숙자층의 64.2%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정치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현 정권의 지지도가 낮고 민주정치체제로의 변화요구가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표 9〉 정치적 성숙도와 정치적 변화에 대한 태도

정치변화 지지여부		정치적 성숙도의 <sup>1</sup>		전체 표본 <sup>2</sup>	
민주정치체제	현정부	비성숙자	성숙자		
반대	반대	1.0%	0.2%	0.5%	(10)
반대	지지	34.7	10.5	20.7	(416)
지지	반대	2.8	12.5	5.5	(113)
지지	지지	61.4	76.8	73.3	(1,468)

주 : 1. 비성숙자는 성숙도의 “하” 수준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성숙자는 성숙도의 “상” 수준에 해당하는 자를 일컬음.

2. 표본중 26명은 무응답자로서 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은 정치적 성숙도의 수준이 정치체제와 정권의 적극적 지지나 반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표 10〉은 3개의 정치적 수준마다 독특한 관계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성숙도의 상층부에 속하는 응답자는 현 정부를 적극 반대하는 테 과대하게 대표되고(overrepresented) 있으나, 민주체제에 대한 적극 반대에는 과소하게 대표되고(underrepresented) 있다. 반면에 그들은 현 정부를 지지하는 테 과소하게 대표되고 있는 반면, 민주체제를 적극 지지하는 테에는 과대하게 대표되고 있다. 정치적 성숙도의 하층부에서는 이러한 과대 및 과소대표의 유형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를 적극 반대하는데 과소하게 대표되었으나 민주정치체제를 적극 반대하는 테에는 과대하게 대표되고 있다. 또한 이들 정치적 비성숙자들은 현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테 과대하게 대표되었으나 민주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테는 과소하게 대표되고 있다. 이 두 유형과 대조적으로 성숙도의 중간부에 속하는 응답자는 지지나 반대의 대상과 관계없이

〈표 10〉 정치성숙도 및 가족수입 수준별 적극적 반대자 및 지지자의 대표율  
가. 정치성숙도 수준별 대표율<sup>1</sup>

성숙도 수준 <sup>2</sup>	적극 반대자 <sup>3</sup>		적극 지지자 <sup>4</sup>	
	현 정 부	민 주 체 제	현 정 부	민 주 체 제
상	114.7	-65.6	-17.9	16.0
중	-34.4	-8.9	4.3	2.4
하	-26.4	106.7	7.7	-21.2

나. 가족수입별 대표율

성숙도 수준	적극 반대자		적극 지지자	
	현 정 부	민 주 체 제	현 정 부	민 주 체 제
상	-2.8	-1.6	-1.9	-2.8
중	-25.1	6.8	-3.7	0.6
하	24.1	1.1	5.7	-4.5

주 : 1. 대표성의 지수는 각 성숙도의 수준에 속하는 지지자나 반대자의 비율에서 그 수준에 속하는 전표본의 비율을 빼서 그 값을 전표본의 비율로 나눈 다음 100으로 곱한 결과이다. +수자는 과대하게 대표됨을 -수자는 과소하게 대표됨을 말함.

2. 성숙도 지수 1에서 3까지 “하”로, 4에서 6까지 “중”으로 7에서 9까지 “상”으로 함.

3. 지지를 거부하고 불만감을 표시한 응답자가 적극 반대에 포함.

4. 지지감과 만족감을 표시한 응답자가 적극적 지지자에 포함.

적극 반대하는 테에는 과소하게 대표되고 있으나 적극 지지하는 테에는 과대하게 대표되고 있다.

이 세가지의 유형을 종합해보면 정치적 성숙도의 서로 다른 수준이 인정된 민주국가 건설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과 같이 민주화의 토착화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는 나라에서는 정치적 성숙도의 중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치적 성숙도의 중간층들은 상층부나 하층부의 사람들과는 달리 새로 탄생한 민주체제와 정권에 대해서 적극 반대보다는 지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안정이 가장 필요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성숙도의 중간층이 필수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이론을 내세울 수 있다 하겠다.

#### (5) 정치적 성숙도와 정당의 태도

차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기 위하여 응답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유형인 정당의 적극적 지지자는 본 논문에서 고려한 3번의 선거에서 언제나 4대 정당이나 여타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을 말한다. 두번째로 정당을 대체로 지지하는 자는 3번의 선거 중 2번의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을 말한다. 세째로 정당에 대체로 반대하는 자는 3번의 선거 중 2번은 어느 정당에 대해서도 지지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3번의 선거 모두에 어느 정당에 대해서도 지지를 거부한 사람들을 정당에 대한 적극적 반대자로 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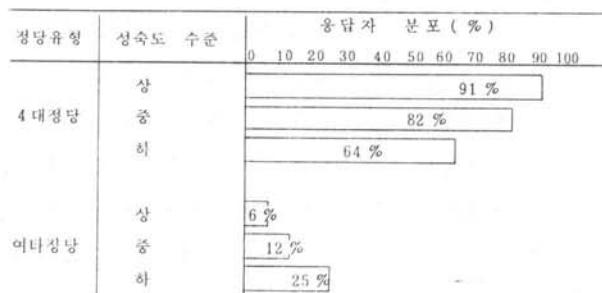
〈표 11〉의 “전체표본” 난에서는 각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84.0%가 4대 정당 또는 기타 정당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10.4%가 지지, 1.0%가 반대, 4.6%가 적극적인 반대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흥미있는 것은 정치적 성숙도의 상층부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87.6%, 중층부에서는 84.0%, 하층부에서는 77.1%가 기존의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하여 성숙도가 높을수록 기존 정당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상층부의 2.2%, 중층부의 3.8%, 하층부의 9.8%가 기존의 특정 정당 지지에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성숙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기존의 정당체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정치적 성숙도와 정당·지지여부

태도의 유형	정 치 적 성 숙 도			전체표본
	상	중	하	
적극적 지지자	87.6%	84.9%	77.1%	84.0% (1,676)
지지자	9.6	10.1	12.3	10.4 (208)
반대자	0.7	1.8	0.8	1.0 (20)
적극적 반대자	2.2	3.8	9.8	4.6 (92)

〈표 12〉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자 및 적극자 지지자들의 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기존의 4대 정당 중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에 있어 정치적 성숙도의 상층부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91%, 중층부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82%, 하층부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64%가 4대 정당 중의 한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함으로써 정치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4대 정당체제에 친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타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이와 반대의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치적 성숙도의 상층부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6%, 중층부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12%, 하층부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25%가 여타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정치적 성숙도가 낮을수록 4대 정당체제에 익숙하지 못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2〉 정치적 성숙도와 4대 정당 및 여타 정당에 대한 지지 수준



## 2. 理論的 含蓄

여기에서는 이상의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정치적 성숙도의 특성이 민주정치의 발전에 관한 기존의 이론에 대비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단, 이와 같은 이론적 함축은 어

디까지나 설문조사의 결과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형의 가능성이 내재해 있으며, 또한 적용상에 생기는 다소간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이 분야에 있어서의 탐색적인 연구의 한 시도라는 점에서 일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1) W. Russell Neuman의 “3大衆 理論(the theory of three publics)”과 한국인의 정치적 성숙도

서론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Neuman은 “정치적 성숙”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사용하여 미국인들의 정치의식을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그는 국민 전체의 정치적 성숙의 평균수준보다는 각 수준에 속하는 그들의 비율이 오히려 민주정치의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경우 국민들이 3부류로 나뉘며, 각 부류가 독특한 정치적 의식과 행태를 지닌다고 하는 “3대중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국민은 ① “無政治的(apolitical)” 계층이 20%, ② “一般大衆(mass public)” 계층이 75%, ③ “積極的 行動主義者(activist)” 계층이 5%를 차지하고 있다. 이 3계층 중 특히 “무정치적”인 계층은 정치적 관심이나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정치적 참여도도 빈약한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민주개혁과 같은 정치운동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한 반민주적 행위에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순조로운 민주주의의 실천에 반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할 경우 한국에 있어서 “무정치적”인 계층에 견줄 수 있는 政治的 非成熟者의 비율은 <표 3>에서 제시된 것처럼 9%에서 1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참고적으로 “적극적 행동주의자” 계층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10%에서 22%, “일반 대중” 계층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58%에서 88%에 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측정이 Neuman의 것과는 다소 다른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서 민주주의의 실천에 반작용할 수도 있는 “무정치적”인 계층의 비율이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민주정치의 발전에 가장 공헌을 많이 할 수 있는 “적극적 행동주의자”가 한국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된다는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가 낙관적이라는 사실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다.

### (2) John L. Sullivan의 多元的 非寬容 理論과 한국인의 정치적 관용도

정치심리학자인 John Sullivan은 한국과 같이 국민들의 정치적 관용도가 낮은 나라에서도 민주정치가 가능하다는 다원적 비관용 이론(theory of pluralistic intolerance)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국민 다수가 자기들이 싫어하는 집단이나 정치적 운동을 관용하지 않더라도 그 대상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 비관용적인 탄압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관용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도 국민들이 싫어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대상이 분산되어 있으면 민주정치는 유지될 수 있고, 반면에 그들의 그러한 감정이 소수의 대상에 국한되어 있으면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결국 특정 집단이나 운동에 대한 非寬容度가 집중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일반적 관용의 수준보다 민주주의의 성립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

본 연구를 조사를 통하여 한국인들의 비관용도가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관용을 보이는 것이 “북한과의 협상운동”으로서 약 89%의 관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은 관용도를 보이는 것이 “공산주의 운동”으로서 이는 약 8%의 관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양극단적인 관용도의 차이인 81%는 한국인들이 관용하지 않는 특정 대상에 대해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 사실은 앞으로의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놓게 하고 있다.

### (3) Seymour Martin Lipset의 민주주의 이론과 한국 민주주의 가능성

정치사회학자인 Lipset은 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그의 이론에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와 만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응답자의 약 79%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대체로 지지를 하고 있으며, 약 57%가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은 Lipset이 말하는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요건을 충분히 갖춤으로써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수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체제에 대한 만족감은 국가와 국민자신들의 경제형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주목해야겠다.

### III. 結論

한국인들은 그들이 염원하고 있는 안정된 민주주의 건설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위에서 제시한 정치적 성숙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들 중 대다수가 정치과정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정도의 관심과 인식을 갖고 있으며, 당면한 정치적 과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타인들의 정치적 선호에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단지 15명 중 1명 정도가 민주정치체제에 대해 불만과 반대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 체제에 만족과 지지를 표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1/6 정도이므로 한국정치의 민주화는 서서히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적 성숙도”가 하나의 주요한 介入變數(intervening variable)로서 정치분석에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정치체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성숙도가 높을수록 지지도가 높으나, 현 정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성숙도가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민주정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정당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는 정치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정당 지지도가 높고, 또한 정치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소수정당보다는 다수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발견은 정치적 성숙도의 중간층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 새로 탄생한 민주정치체제 및 정부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중간층은 상층부나 하층부와는 달리 민주체제나 정부에 적극적 반대보다는 적극적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신생 민주국가가 안정적이 고 완전한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중간층보다 정치적 중간층의 성장을 더 필요로 한다는 새로운 정치성숙의 이론(new theory of political sophistication)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성숙의 매 차원마다 보다 신빙성이 있고 타당한 지수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 지

수를 linear structural equation model과 같은 고도로 발달된 통계적 절차를 통해서 보다 적절한 차원적 및 종체적 지표를 산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성숙도의 수준과 분포만을 살펴보았으나, 앞으로는 각 차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정치적 성숙도의 결정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吉昇欽

1981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 변화 : 1963년과 1978년”,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 정치와 복지 국가」, 서울 : 삼영사.

1985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 변화 : 1978년과 1985년,” 한국정치학회 편, 「제 6 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 한국정치학회.

1986 “한국인의 정치의식의 변화 : 1945년과 1985년,” 사회과학연구소 편, 「해방 40년 :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光雄

1985 “민주의식과 투표형태,” 한국정치학회 편, 「제 6 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 한국정치학회.

#### 金永文

1987 “한국사회 20대, 30대의 정치성향 분석—대구,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현대사회」 제 28집(겨울).

#### 金宗林·이남영

1986 “산업국가에 있어서의 신념체계와 정치현실,” 「한국정치학회보」 제 20집 제 2 호.

#### 金學俊

1983 “해방과 분단의 정치문화,”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 이만갑 교수 화답기념논총」, 서울 : 법문사.

#### 朴容憲

1980 “현대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사상논총」.

#### 裴成東·吉榮煥·金宗林

1975 “한국인의 정치참여형태와 그 특성,” 한국정치학회 편, 「제 1 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 한국정치학회.

#### 서울대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한국의 중산층 : 전환기의 한국사회 조사자료집 Ⅱ」, 서울 : 한국일보사.

#### 신명순

1986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문화,” 현대사회연구소 편, 「한국정치발전의 현실과 과제」, 성남 : 현대사회연구소.

安清市

1987 “전후세대의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 안청시·최일섭 편,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서울:집문당.

尹天柱

1962 「한국정치체계 서설: 정치상황과 정치형태」 증보판, 서울: 문운당.

1979 「한국정치체계: 정치상황과 정치참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이남영

1985 “산업화와 정치문화: 민주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19집.

李永鎬

1973 “한국사회변화와 정치참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전통과 변천」,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9 “한국 농촌의 근대화와 정치문화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논총」 제34집.

1980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혁과 정치문화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편, 「사회과학논집 I」(12월).

1982 “현대 한국의 정치문화,” 김운태 외,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李正馥

1982 “한국의 사회계층과 정치문화,” 「현대사회」(봄).

李知勲

1982 “한국 정치문화의 기본요인,” 「한국정치학회보」 제16집.

李洪九

1977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발전: 서울시 저소득층 정치성향의 한 단면,” 「한국정치학회보」 제11집.

李海南

1963 「한국현대정치문화사」, 서울: 문운당.

張乙炳

1986 “한국 정치문화의 변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의 변동」,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丁得圭

1975 「정치의식과 투표형태」, 서울: 박영사.

丁得圭·金鍾益

1971 “한국인의 정치의식의 구조적 분석,” 「전남대학교 논문집」 제17권.

趙一文

1973 “한국정치문화의 구조적 특질,” 「전대학보」(2월).

韓相震

1986 “한국 중산층의 정치의식,” 「국책연구」(여름).

韓培浩

1965 「이론정치학: 정치행동의 요인분석」, 서울: 일조각.

韓太壽

- 1968 “한국대중의 정치의식에 관한 고찰” 「지양 신기석박사 회갑기념 학술논문집」, 서울 : 삼화인쇄소.
- Alfonsin, Raul  
 1986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the Third World,” *Third World Quarterly* (January): 349-50.
- Barber, Benjamin  
 1984 *Strong Democrac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bbio, Norberto  
 1984 *The Future of Democrac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onover, Pamela & Stanley Feldman  
 1984 “How People Organize the Political Worl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 (February): 95-126.
- Dahl, Robert  
 1971 *Polyarch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ennis, Jack, et al.  
 1968 “Political Socialization to Democratic Orientations in four Western System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 (April): 71-101.
- DiPalma Giuseppe & Herbert McClosky  
 1970 “Personality and Conformity: The Learning of Political Attitud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December): 1054-1073.
- Gibson, James L.  
 1987 “The Evolution of Intolerance in the United States,” (Paper presented at the 1987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Han, Sungjoo  
 1987 “Korea Has Little Choice but to Press Forward to Democracy,” *Korea Herald*, December 3.
- Harrison, Selig S.  
 1987 “Dateline South Korea: A Divided Seoul,” *Foreign Policy* 67 (Summer): 154-175.
- Hart, Vivian  
 1978 *Distrust and Democrac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84 “Will More Countries Become Democratic,”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9 (Summer): 193-218.
-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87 “The Renaissance of Political Culture,” (Paper presented at the 1987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Iyengar, Shanto  
1987a "Shortcuts to Political Knowledge: The Role of Selectivity and Accessibility," (mimeo).
- Iyengar, Shanto & Donald Kinder  
1987 *News That Matt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Kim, Chong lim  
1986 *The Belief Systems and Competitive Politics in an Industrializing Nation: An Essay on the Potentials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Occasional Paper #40, University of Iowa Laboratory for Political Research.)
- Linz, Juan & Alfred Stephen  
1978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1984 *Democrac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pset, Martin Seymour  
1987 "The Conditions of the Democratic Order," (mimeo, Stanford University.)
- Lipset, Martin Seymour & Earl Raab  
1970 *The Politics of Unreason*. New York: Harper & Row.
- Malloy, James M. & Mitchell Seligson (eds.)  
1987 *Authoritarians and Democrats: Regime Transition in Latin America*.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 MacKuen, Michael  
1984 "Exposure to Information, Belief Intergration, and Individual Responsiveness to Agenda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 (June): 372-391.
- McClosky, Herbert & Dennis Chong  
1980 "The Learning of Civil Libertarian Norms Among Elites and the Mass Public," (Paper presented at the 1980 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nvention, San Francisco).
- McClosky, Herbert & Alida Brill  
1983 *Dimensions of Tolera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McClosky, Herbert & John Zaller  
1984 *The American Etho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cDonough, Peter  
1981 *Power and Ideology in Brazi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cDonough, Peter, Samuel Barnes & Antonio Lopez Pina  
1986 "The Growth of Democratic Legitimacy in Spa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September): 735-760.
- Merelman, Richard M.  
1980 "Democratic Politics and the Culture of American Education," *American*

- Political Science Review 74 (June): 319-332.
- Muller, Edward
- 1970 "Cross-National Dimensions of Political Compet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September): 792-809.
- Muller, Edward, P. Pesson & T.O. Jukam
- 1980 "Support for the Freedom of Assembly in Western Democrac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8: 256-288.
- Muller, Edward, Thomas Jukam & Michell Seligson
- 1982 "Diffuse Political Support and Antipolitical System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 (May): 240-264.
- Muller, Edward, Mitchell Siligson & Ilter Turan
- 1987 "Education, Participation, and Support for Democratic Norms," *Comparative Politics* (October): 19-33.
- Needler Martin C.
- 1987 *The Problem of Democracy in Latin America*. Boston: D.C. Heath.
- Neuman W. Russell.
- 1986 *The Paradox of Mass Politi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unn, Clyde, Harry Crockett & J. Williams
- 1978 *Tolerance for Nonconformity*. San Francisco: Jossey-Bass.
- O'Donnell, Guillermo, Philippe C. Schmitter & Laurence Whitehead
-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 Preston, Paul
- 1986 *The Triumph of Democracy in Spain*. New York: Methuen.
- Pridham, Geoffrey (ed.).
- 1984 *The New Mediterranean Democracies: Regime Transition in Spain, Greece and Portugal*. Totowa, New Jersey: Frank Cass and Co.
- Prothro, James & Charles W. Grigg
- 1960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Journal of Politics* 22: 276-294.
- Putnam, Robert D.
- 1973 *The Beliefs of Politicia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elcher, Wayne (ed.)
- 1980 *Political Liberalization in Brazil: Dynamics, Dilemmas and Future Prospects*. Boulder: Westview.
- Seligson, Mitchell & Edward Muller
- 1987 "Democratic Stability and Economic Crisi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1 (September): 301-326.
- Shamir, Michal
- 1987 "Political Intolerance Among Masses and Elites in Israel," (Paper presented at the 1987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 Illinois).
- Shamir, Michal & John L. Sullivan  
1985 "Jews and Arabs in Isra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9 (June): 283-305.
- Share, Donald  
1986 *The Making of Spanish Democracy*. New York: Praeger.  
1987 "Transition to Democracy and Transition Through Transac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9 (January): 525-548.
- Sniderman, Paul  
1975 *Personality and Democratic Poli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81 *A Question of Loyal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Sniderman, Paul & James Kuklinski  
1984 "Policy Reasoning and Political Valu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
- Sullivan, John L., James Pierson & George Marcus  
1982 *Political Tolerance and American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ullivan, John L., Michal Shamir, Patrick Walsh & Niegel Roberts  
1985 *Political Tolerance in Context*. Boulder: Westview.
- Sullivan, John L., & David G. Barnum  
1987 "Attitudinal Tolerance in the United Kingdom," (Paper presented at the 1987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Weil, Frederick  
1985 "Tolerance of Free Speech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 Germany," *Social Forces* 60: 973-993.  
1985 "A Second Chance for Liberal Democracy: Popular Legitimation in Post-authoritarian West European Regimes," (Paper presented at the 1985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New Orleans).  
1986 "Political Culture, Liberal Democracy, and Regime Change," (mimeo).  
1987a "The Development of Liberal Values in West Germany Since World War II," (mimeo).  
1987b "Is/Was There a Legitimation Crisis? Evidence from Seven Western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Weiner, Myron  
1987 "Empirical Democratic Theory and the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PS* 20 (Fall): 861-866.
- Wesson, Robert  
1982 *Democracy in Latin America*. New York: Praeger.

Zaller, John

1986 "Alternative Measures of Political Awareness," (Paper presented at the 1986 Meeting of the Political Methodology Society Meeting, Cambridge, Massachusetts).

1987a "Partisan Controversy and Mass Attitude Change," (Paper presented at the 1987 Political Methodology Society held at Duke University).

1987b "Sources of Popular Support for Authoritarian Regimes," (Revision of a paper presented at the 1983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1987c "Diffusion of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53(November): 821-833.

Zallman, Gail L.

1975 "Antidemocratic Beliefs: A Survey and Some Explan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31: 31-53.

Zallman, Gail L. & David O. Sears

1971 "Childhood Origins of Tolerance for Dissent," *Journal of Social Issues* 27: 109-136.